

國民的인 信賴와 合意形成에 노력



韓 鳳 洙
〈韓國原子力産業會議 會長〉

존경하는 內外貴賓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 最初의 古里原子力發電所 1호기가 竣工式을 가진지 만10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기에 때맞추어 原子力發電에 대한 國民理解심포지움을 열고 격의없는 意見을 나누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유익한 일이라 생각하면서 參席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10년동안 우리나라의 原子力發電은 잠시의 중단도 없이 꾸준한 成長의 길을 걸어 왔습니다.

運轉중인 發電所만 하여도 現在 7基에 5백71만6천킬로와트를 確保하고 있으며 蔚珍에 건설 중인 95만킬로와트급 2基도 이미 完工단계에 들어가 1호기는 곧 竣工을 앞두고 있습니다.

原子力發電所에서 生産되는 電力量이 지난해부터 우리나라 總發電量의 50%를 훨씬 넘어서고 있어 이제 바야흐로 原子力이 主力電源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굳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設備의 性能과 運營技術을 가능하는 設備利用率도 평균 80%를 記錄하여 世界 5位圈에 진입하는 成果를 거두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르러 우리나라는 해마다 電氣料金の 引下를 단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뒷받침한 가장 큰 힘은 바로 原子力發電量의 증가라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原子力發電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經濟發展과 國民文化生活的 原動力으로서 많은 寄與를 해 왔습니다만 한편으로는 脫油電源開發爲主의 政策이 國民의 폭넓은 理解를 구하지 못한 가운데 추진됨으로써 일부 國民의 憂慮와 批判을 낳은 일도 없지 않았다고 하겠습니다.

널리 알려진 일입니다만 현재 추진중인 靈光原子力 3·4호기의 건설을 둘러싼 波紋도 알고 보면 충분한 理解와 國民的 合意의 과정을 소홀히 한데서 오는 誤解가 쌓여 輿論의 화살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政府나 韓電으로서 이 靈光 3·4호기의 건설을 통하여 韓國型 原電의 標準모델을 만들고 原電技術를 自立하여 에너지의 準國産化을 이루는 한편 나아가서는 世界原電市場에의 進出까지를 내다 본 長期計劃 아래 추진한 것입니다. 그 뜻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해 見解差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時點에서 우리가 할 일은 國民的 輿論을 적극적으로 受容하는 한편 原子力發電의 必要性和 建設 및 運營에 따른 實相을 사실대로 알려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감으로써 國民的인 信賴와 合意을 도출하는 共感帶의 形成에 있다고 믿으면서 오늘 이 모임이 이러한 우리의 뜻을 確認하고 評價하는 좋은 機會가 되기를 懇切히 바랍니다.

다행히 이 자리에는 日本과 캐나다, 프랑스 등 先進國의 專門人들이 참석하여 國民的 信賴에 대한 그들 나라의 산 經驗을 발표하고, 國內에서도 言論人, 學者, 環境保護團體의 대표가 나와서 그 所見을 들려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오늘 이 모임이 原子力發電에 대한 理解의 폭을 넓히는 有益한 廣場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이 行事를 위해 參與하고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感謝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좋은 指導와 鞭撻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外國에서 참석한 분들께서는 '88서울올림픽이 열리는 이 땅의 風物을 두루 살펴 보십시오. 한국과의 거리를 좁히는 뜻깊은 旅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